

# 『한객건연집』에 실린 유득공 시의 격률에 관하여

허경진\* 조영심\*\*

## 1. 들어가며

탄소(彈素) 유금(柳琴, 1741~1788)은 1776년 이덕무(李德懋, 1741~1793), 유득공(柳得恭, 1748~1807), 박제가(朴齊家, 1750~1805), 이서구(李書九, 1754~1825)의 시를 각 100 편씩 묶은 『한객건연집(韓客巾衍集)』을 가지고 연행에 나선다. 그는 이 책을 청조의 문인 이조원(李調元, 1734~1803)과 이미 조선인들과 친분이 있었던 반정균(潘庭均)에게 보이고 평을 얻어 온다. 사가의 시는 이후 이조원의 『우촌시화(雨村詩話)』에 실리게 되고, 사가와 이조원 및 반정균의 교유는 서신 등을 통해 지속되게 된다.

『한객건연집』의 저본이 된 것은 사가의 초기 문집이었다. 유득공의 경우 현존하지 않는 『가상루집(歌商樓集)』이 저본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형수(徐滢修, 1749~1824)의 『명고전집(明臯全集)』에 『가상루집』의 서문이 남아있는데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있다.

유상사 혜풍이 그가 지은 『가상루시집(歌商樓詩集)』을 갖고 와서 나에게 서문을 써주기를 요구하였다. 나는 읽고 나서 찬탄을 하였다.

“시사(詩史)의 나머지에 가깝구나!”

**무릇 뜬 듯한 소리와 애절한 음향, 맑고 탁한 소리 사이를 고르고, 손으로 생활을 뜰으며 눈으로 고금 그림이 아른거리는 떠위의 시를 어찌 혜풍이 짓지 못하겠는가? 실로 짓지 않는 것이다.**

혜풍은 시를 지을 때 박아를 채로 삼고 권정을 응으로 삼는다. 동해에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아름답고 빼어남에도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반드시 삼가 기록하고, 북해에 한 가지 일이 있어 그 일이 세속의 범상한 것과는 크게 다름에도 그 말이 널리 퍼지지 않았으면 반드시 삼가 기록하였다. 나아가 고금을 통하고 우주를 꿰뚫어 대서·특서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단지 조선의 국풍일 뿐만이 아니다. 지금의 시사로 혜풍을 꼽지 않으면 누구이겠는가?<sup>1</sup>

서형수는 서문에서 유득공의 시사(詩史)로서의 면모를 강조했다. 유득공은 ‘뜬 듯한 소리와 애절한 음향, 맑고 탁한 소리 사이를 고르고, 손으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생

<sup>1</sup> 徐滢修, 『明臯全集』, 「歌商樓詩集序」, “柳上舍惠風。手其所著歌商樓詩集。求余爲之序。余讀而歎曰。其庶乎詩史之餘也。夫浮聲切響。清濁和間。鼓篳簫於觸手。迷錦繪於顧眄者。豈惠風之不能哉。固不爲也。惠風之爲詩也。博雅以爲其體。勸懲以爲其用。東海有一人焉。其人瑰奇而其名不陳。必謹書之。北海有一事焉。其事吊詭而其說不傳。必謹書之。以至於通古今一宇宙。而無不大書特書之。蓋不獨爲朝鮮之國風而已也。今之詩史。舍惠風其誰哉。然且學詩數十年。惠風自唱自歌於自室之中。而尚未聞有太史之采訪。則將太史之不及古歟。抑今日之更有詩史歟。”(유득공 지음·김윤조 옮김(2005), 『누가 알아주랴 : 유득공 산문집』, 태학사)

생황을 뜯으며 눈으로 고운 그림이 아른거리는' 시를 쓸 수 있었지만, 이러한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특성보다 '역사'라는 특성에 주력하여 시를 집필하였다는 것이다. 원문의 '부성절향(浮聲切響)'이란 구절은 직역하면 '뜯 듯한 소리와 애절한 음향'이라고 해석되지만, 심약(沈約, 441~513)에 따르면 '浮聲'을 측성으로, '切響'을 평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심약을 따라 해석할 경우 이 구절은 시의 '평측' 상황, 즉 성률(聲律)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된다. 어떻게 해석하든 서형수는 유득공의 시에서 청각적인 특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형수가 보기에 『가상루집』의 시는 다양한 인물과 사건을 다뤘지만 시의 중요한 특성인 '소리'를 중시한 시는 아니었던 것이다.

한시에서 '소리'란 시의 평측을 결정하고, 평측은 근체시에 있어서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근체시에서 '소리'란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객건연집』 유득공 작품 뒤에 붙인 반정균의 발문은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영재는 재주와 시정(詩情)이 풍부하며 격률도 유독 뛰어나 때때로 푸른 바다 속에서 고래가 보이는 것과 같다. (후략)<sup>2</sup>

반정균은 유득공의 『한객건연집』 내 시 작품이 '격률'에서 유독 훌륭하다고 했다.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의 표제어 '格率' ②항에서는 "詩, 詞, 曲, 賦等關於字數, 句數, 對仗, 平仄, 押韻等方面的格式和規律."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격률'은 '평측(平仄)'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평측'이란 음운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곧 '소리'와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반정균이 '격률이 유독 뛰어나'다고 평한 것은 청각적인 특성에 있어서 서형수와는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객건연집』의 유득공 작품 100 수는 『가상루집』의 시 중에서 유금의 시관에 의해 편집되고 교정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옥석이 가려졌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한객건연집』 내 유득공 시 작품 100 수 중 오언과 칠언의 절구 및 율시의 평측 분석 결과 현재 정격으로 알려진 한시의 규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작품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평가의 상이함이 발생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한객건연집』 수록 유득공의 작품을 가지고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은 선인들의 '훌륭하다'는 평가를 문면 그대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어째서' 훌륭했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2 장에서는 100 수 중 오언절구, 칠언절구, 오언율시, 칠언율시 작품에 한하여 격률을 조사해보고 유득공이 범하고 있는 오류들을 정리했다. 3 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이조원과 반정균의 평이 오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촌시화』 수록 유득공 작품의 격률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4 장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을 이조원의 시관과 사가에 대한 반정균의 태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sup>2</sup> 반정균, 『한객건연집』, "冷齋才情富有, 格律獨高, 時露鯨魚碧海之觀. (後略)"

## 2. 유득공 시의 격률 상황

본장에서는 유득공의 『한객건연집』 내 근체시의 격률을 분석해보고 시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정리해봄으로써 서형수와 반정균의 언급을 이해해보도록 한다. 『한객건연집』은 이본이 매우 다양하다. 애초에 유금이 선집해 연행에 가져간 것도 필사본이었던데다가 현존하는 『한객건연집』 역시 대부분 필사본이다. 유금이 연행에 가지고 간 필사본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한객건연집』 연구에 바탕이 된 판본들 또한 다양하다. 본고는 장서인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버클리 대학 소장 김세균본<sup>3</sup>을 바탕으로 국립중앙도서관 <古貴 3643-20>본과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 45-가 47>본을 교감하도록 한다. 대상 작품은 오언과 칠언의 절구 및 율시로 한정한다.

표 1. 버클리대 김세균본 『한객건연집』 유득공 작품의 평측 분석<sup>4</sup>

|                | 平仄規格                            |      |                 |                       | 押韻<br>狀況 | 備註           |
|----------------|---------------------------------|------|-----------------|-----------------------|----------|--------------|
|                | 參照標準<br>(此列所言入韻<br>否一指首句而<br>言) | 不合之處 |                 |                       |          |              |
|                |                                 | 位置   | 規則              | 實際                    |          |              |
| 書中城主人<br>吳士賓壁上 | 오절측기식                           |      |                 |                       | 田年：先，平   |              |
| 水標橋絕句<br>4 首   | 칠절평기입운식                         |      |                 |                       | 邊然烟：先，平  |              |
|                | 칠절평기입운식                         |      |                 |                       | 消橋遙：蕭，平  |              |
|                | 칠절평기입운식                         |      |                 |                       | 洲油流：尤，平  |              |
|                | 칠절측기입운식                         |      |                 |                       | 天娟然：先，平  |              |
| 西京襍絕<br>6 首    | 칠절평기입운식                         | 4    | (平)平(仄)仄仄平<br>平 | 葦 <sub>平</sub> 草色使人愁  | 秋洲愁：尤，平  | 二四六分<br>明    |
|                | 칠절평기입운식                         | 4    |                 |                       | 邊年筵：先，平  |              |
|                | 칠절평기입운식                         |      |                 |                       | 根村門：元，平  |              |
|                | 칠절측기입운식                         |      |                 |                       | 曠裙墳：文，平  |              |
|                | 칠절평기입운식                         |      |                 |                       | 低堤迷：齊，平  |              |
|                | 칠절평기입운식                         |      |                 |                       | 旋船川：先，平  |              |
| 松京襍絕<br>6 首    | 칠절평기입운식                         | 3    | (平)仄(平)平平仄<br>仄 | 吹笛橋邊踏 <sub>平</sub> 青去 | 灰來回：灰，平  | 二四六分<br>明 孤平 |
|                | 칠절평기입운식                         |      |                 |                       | 非歸飛：微，平  |              |

<sup>3</sup> 소장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으며, 이조원 청목·반정균 주목으로 미평, 권, 점, 충평, 발문 등을 잘 기록해두었다.

<sup>4</sup> 이 표는 ‘허경진·劉暢(2012), 『『사고전서』에 실린 서경덕 시의 격률에 관하여』, 『동양한문학회연구』 제 34 집, 동양한문학회’의 두 번째 표의 체제를 따왔다. 시의 인용 순서는 형식 순으로 시가 정리되어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 45-가 47>본을 따른다.

|                       |         |                  |                                          |                                  |                         |                   |
|-----------------------|---------|------------------|------------------------------------------|----------------------------------|-------------------------|-------------------|
|                       | 칠절평기입운식 |                  |                                          |                                  | 嵯：歌，平<br>紗：麻，平<br>波：歌，平 | 押韻                |
|                       | 칠절평기입운식 |                  |                                          |                                  | 陵燈層：蒸，平                 |                   |
|                       | 칠절평기입운식 |                  |                                          |                                  | 垂鸞吹：支，平                 |                   |
|                       | 칠절평기입운식 |                  |                                          |                                  | 衢呼姑：虞，平                 |                   |
| 素玩居士鶴<br>隆井 2 首       | 칠절평기입운식 |                  |                                          |                                  | 蒿曹毛：豪，平                 |                   |
|                       | 칠절측기입운식 |                  |                                          |                                  | 皋豪高：豪，平                 |                   |
| 熊州懷古                  | 칠절평기입운식 | 3                | (平)仄(平)平平仄仄                              | 吹笛皋蘭寺裏去                          | 年鵲前：先，平                 | 下三仄               |
|                       | 칠절평기입운식 | 3                | (仄)仄(仄)平平仄仄                              | 舊蜂掠過嚶嚶詔                          | 蕩天然：先，平                 | 二四六分明             |
| 輪回梅絕句<br>5 首          | 칠절평기입운식 | 1                |                                          |                                  | 春真人：真，平                 |                   |
|                       | 칠절평기입운식 |                  |                                          |                                  | 家紗華：麻，平                 |                   |
|                       | 칠절측기입운식 |                  |                                          |                                  | 長黃凰：陽，平                 |                   |
|                       | 칠절평기입운식 |                  |                                          |                                  | 人春因：真，平                 |                   |
| 秋園卽日 2<br>首           | 칠절평기입운식 |                  |                                          |                                  | 明聲情：庚，平                 |                   |
|                       | 칠절평기입운식 |                  |                                          |                                  | 霜黃香：陽，平                 |                   |
| 夏夜                    | 칠절측기입운식 | 1                |                                          |                                  | 肥衣飛：微，平                 |                   |
| 楊花渡 2 首               | 칠절측기입운식 |                  |                                          |                                  | 成名行：庚，平                 |                   |
|                       | 칠절측기식   | 1                | (平)仄(仄)平平仄仄                              | 江上峭峯碧兀兀                          | 濛中：東，平                  | 下三仄               |
| 陽川途中                  | 칠절평기입운식 |                  |                                          |                                  | 飛肥歸：微，平                 |                   |
| 別後                    | 칠절측기입운식 |                  |                                          |                                  | 筵天年：先，平                 |                   |
| 二西閣初秋<br>夜            | 칠절평기입운식 |                  |                                          |                                  | 櫛風櫛：東，平                 |                   |
| 秋後過東莊                 | 칠절측기입운식 |                  |                                          |                                  | 中空童：東，平                 |                   |
| 田舍夜飲                  | 칠절평기입운식 |                  |                                          |                                  | 紅中風：東，平                 |                   |
| 素玩亭居士<br>歸東萊約秋<br>晚相訪 | 칠절평기입운식 |                  |                                          |                                  | 萊開來：灰，平                 |                   |
| 送李時叔南<br>歸            | 오을평기식   |                  |                                          |                                  | 依衣肥飛：微，平                |                   |
| 湖夜                    | 오을측기식   | 2<br>4<br>6<br>8 | 平平(平)仄平<br>(平)仄仄平平<br>平平(仄)仄平<br>(平)仄仄平平 | 片帆如蜨輕<br>青山終古橫<br>江月未能盈<br>愁絕無喧聲 | 輕橫盈聲：庚，平                | 孤仄<br>二四分明<br>下三平 |
| 蟋蟀 4 首                | 오을평기식   | 1<br>5           | (平)平平仄仄<br>(平)平平仄仄                       | 昆蟲入愛玩<br>廊陰颺曳履                   | 機歸衣稀：微，平                | 下三仄               |
|                       | 오을측기식   | 3<br>7           | (平)平平仄仄<br>(平)平平仄仄                       | 人雖謂唧唧<br>淒清近我戶                   | 分云羣聞：文，平                | 下三仄               |
|                       | 오을평기식   | 1                | (平)平平仄仄                                  | 淒風助腿激                            | 乾：先，平                   | 押韻                |

|                       |         |        |                                    |                    |                                           |                    |
|-----------------------|---------|--------|------------------------------------|--------------------|-------------------------------------------|--------------------|
|                       |         |        |                                    |                    | 安：寒，平<br>寒：寒，平<br>殘：寒，平                   | 下三仄                |
|                       | 오을측기식   | 2<br>7 | 平平仄仄平<br>(平)平平仄仄                   | 軋鴉自不禁<br>詩人歲暮意     | 禁音深襟：侵，<br>平                              | 孤平<br>拗救<br>下三仄    |
| 和仲牧咏蟬<br>2 首          | 오을평기식   | 1      | (平)平平仄仄                            | 聲聲似往歲              | 暉飛歸機：微，<br>平                              | 下三仄                |
|                       | 오을평기식   | 5      | (平)平平仄仄                            | 攀枝意寂寞              | 愁收颺求：尤，<br>平                              | 下三仄                |
| 錦江舟中賦<br>蜻蜓           | 오을측기입운식 | 1<br>3 | (平)仄仄平平<br>(平)平平仄仄                 | 蜻蜒復蜻蜒<br>滄江映碧眼     | 蜒停翎停亭：青，平                                 | ：二四分明<br>孤仄<br>下三仄 |
| 觀魚 5 首                | 오을측기식   |        |                                    |                    | 撻：東，平<br>雙：江，平<br>攣：腫，上<br>江：江，平          | 押韻                 |
|                       | 오을평기식   |        |                                    |                    | 邊然妍薦：先，平                                  |                    |
|                       | 오을평기식   | 5      | (平)平平仄仄                            | 蛟龍擬率去              | 雷偁來洄：灰，平                                  | 下三仄                |
|                       | 오을평기식   | 1      | (平)平平仄仄                            | 君家碧玉沼              | 亭丁溟腥：青，平                                  | 下三仄                |
|                       | 오을평기식   | 2<br>3 | (平)仄仄平平<br>(仄)仄平平仄                 | 魚子多於蓮<br>瘁矣鞠躬鱗     | 蓮鰮偏然：先，平                                  | 下三平<br>孤平          |
| 歲暮山中客<br>5 首          | 오을측기식   | 3<br>4 | (平)平平仄仄<br>(平)仄仄平平                 | 峯青雨黑際<br>漁白樵紅時     | 枝時詩誰：支，平                                  | 下三仄<br>下三平<br>拗救   |
|                       | 오을평기식   | 1      | (平)平平仄仄                            | 東峰碧未已              | 情聲橫生：庚，平                                  | 下三仄                |
|                       | 오을측기식   | 3      | (平)平平仄仄                            | 樓開一客坐              | 暉歸肥依：微，平                                  | 下三仄                |
|                       | 오을평기식   | 1      | (平)平平仄仄                            | 寒山一白屋              | 居初書魚：魚，平                                  | 下三仄                |
|                       | 오을측기식   |        |                                    |                    | 拈簷鎌織：鹽，平                                  |                    |
| 同燕岩炯庵<br>遊麻浦          | 칠을평기입운식 | 3      | (平)仄(仄)平平仄仄<br>仄                   | 韓使不歸島雲白            | 舟樓愁流洲<br>尤，平                              | ：二四六分明<br>孤平孤仄     |
| 滿月臺懷古                 | 칠을측기입운식 | 7<br>8 | (仄)平(平)仄平平<br>仄<br>(平)仄平平(仄)仄<br>平 | 緬憶吾家文正相<br>韓聲磔磔此墀形 | 宮：東，平<br>隴：冬，平<br>中：東，平<br>愔：東，平<br>彤：冬，平 | 押韻<br>二四六分明        |
| 大同江舟中<br>遇雨金又門<br>携酒至 | 칠을측기입운식 |        |                                    |                    | 違妃歸衣非<br>微，平                              | ：                  |
| 贈李右將軍<br>2 首          | 칠을측기입운식 |        |                                    |                    | 撻：麻，平<br>過：歌，平<br>娥：歌，平<br>歌：歌，平<br>何：歌，平 | 押韻                 |
|                       | 칠을측기입운식 |        |                                    |                    | 君軍斤裙醺<br>文，平                              | ：                  |
| 熊州館歲暮<br>吟 5 首        | 칠을평기입운식 | 2      | (平)仄平平(平)仄<br>平                    | 南國布衣殊未還            | 關還問環山<br>刪，平                              | ：孤仄                |
|                       | 칠을평기입운식 |        |                                    |                    | 殘寒韓官肝<br>寒，平                              | ：                  |
|                       | 칠을측기입운식 |        |                                    |                    | 關：寒，平<br>漫：寒，平                            | 押韻                 |

|                  |         |   |             |         |                         |            |
|------------------|---------|---|-------------|---------|-------------------------|------------|
|                  |         |   |             |         | 歡：寒，平<br>安：寒，平<br>還：刪，平 |            |
|                  | 칠을측기입운식 |   |             |         | 窮窓鴻風紅<br>東，平            | :          |
|                  | 칠을평기입운식 |   |             |         | 才催哀迴盃<br>灰，平            | :          |
| 芙蓉山中話<br>舊述懷 5 首 | 칠을평기입운식 |   |             |         | 株夫呼珠與<br>虞，平            | :          |
|                  | 칠을평기입운식 |   |             |         | 螢亭星經青<br>青，平            | :          |
|                  | 칠을측기입운식 |   |             |         | 林衿吟黔琴<br>侵，平            | :          |
|                  | 칠을평기입운식 |   |             |         | 州樓愁秋遊<br>尤，平            | :          |
|                  | 칠을측기입운식 | 5 | (平)仄(平)平平仄仄 | 還似寒號得過鳥 | 東同中蟲紅<br>東，平            | : 下三仄      |
| 寄李多大浦<br>僉使      | 칠을평기입운식 |   |             |         | 春蘋濱人身<br>眞，平            | :          |
| 貞西夜集             | 칠을평기입운식 |   |             |         | 纖沾簾尖添<br>鹽，平            | :          |
| 穴口津舟泊            | 칠을측기입운식 | 3 | (平)平(仄)仄平平仄 | 帆身半濕祖江雨 | 逢宮風中紅<br>東，平            | : 孤平<br>拗救 |
| 一瓢亭感舊            | 칠을측기입운식 |   |             |         | 愁秋州樓流<br>尤，平            | :          |

대상으로 다룬 유득공의 근체시는 오언절구 1 수, 칠언절구 35 수, 오언율시 18 수, 칠언율시 19 수로 총 73 수이다. 이 중 29 수에서 크고 작은 격률 상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약 40%의 시에 오류가 있는 셈이니 적다고 할 수 없다.

압운에 있어서는 <歌운·麻운> 2 수, <先운·寒운> 1 수, <寒운·刪운> 1 수, <東운·江운·腫운> 1 수, <東운·冬운> 1 수에서 통압의 사례가 나타났다. 근체시의 용운은 매우 엄격하여 절구·율시·배율을 막론하고 반드시 일운도저(一韻到底)여야 하며 통운을 허용치 않는다.<sup>5</sup> 인운을 이용하는 경우 통압이 인정되지만 <歌운·麻운>의 경우는 통압이 불가능하다.<sup>6</sup> 또한 상성 腫운으로 통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10 수에서는 ‘二四六分明’의 원칙을 어기고 있으며, 이 밖에도 ‘下三仄’과 ‘下三平’, ‘孤平孤仄’의 오류들이 발견된다.

격률 상황이 이와 같으니 서형수의 언급처럼 유득공이 소리에는 대단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반정균의 ‘격률이 유독 뛰어나다(格律獨高)’는 발문은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 3. 격률 오류와 평가의 관계

『한객건연집』은 사가(四家)의 이름을 중국에 처음으로 소개한 시선집으로 이조원과 반정균의 평을 얻고 국내에서도 두루 읽힌 책이었다. 그러

<sup>5</sup> 왕력 저·송용준 역주(2005), 전계서, p.107.

<sup>6</sup> 허경진·유창(2012), 전계서, 참고.

나 2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득공 작품의 경우 크고 작은 평측의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형식적 오류들이 과연 중국 내에서 유득공의 시가 수용되는데 무리를 일으키지는 않았을까. 본 장에서는 『한객건연집』 내 유득공 시의 격률과 평의 상관관계 및 중국 수용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 3-1. 격률과 평(評)의 상관관계

이조원과 반정균은 크게 7 가지 방식으로 『한객건연집』에 간여하고 있다. 먼저 전체 책의 서문을 각각 남기고 있다. 그리고 사가 1 인의 작품이 수록된 각 권 끝에 이조원은 총평을, 반정균은 발문을 남기고 있다. 각 작품에 대해서는 미평(眉評), 권(圈), 점(點)을 주로 남겼고 간혹 수평(首評)을 남기기도 했다. 권과 점의 구별에 대해 이조원과 반정균의 언급은 없지만, 강세황의 ‘서문표기권점평주법(書文標記圈點評註法)’에 따르면, (권과 점이 같이 찍는 경우가 있다면) 권은 문장이 극히 잘된 곳 다음으로 잘된 곳에, 점은 문장이 그저 잘된 곳에 사용한다고 한다.<sup>7</sup> 이것은 산문에 해당하는 표기법이며, 권과 점을 같이 찍는 경우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한객건연집』의 평점에 완벽히 부합하는 설명은 아니지만, 적어도 권과 점이 찍힌 구절이 ‘잘된 곳’이라는 인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평점이 붙은 시는 ‘잘된 작품’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격률에서 오류를 범한 시(구절)와 그렇지 않은 시의 비평 비중을 살펴보는 것으로, 격률과 잘된 작품에 대한 이조원과 반정균의 태도를 거칠게나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유득공 작품의 경우 수평이 붙은 것은 오언고시 <麻浦打魚篇> 1 수뿐이므로 수평은 논의에서 제외하고, 작품에 붙인 나머지 비평인 ‘미평, 권, 점’을 대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표 2. 격률 오류 구절과 미평·권·점의 비중

|          | 이조원      |          |          | 반정균     |          |          |
|----------|----------|----------|----------|---------|----------|----------|
|          | 미평       | 권        | 점        | 미평      | 권        | 점        |
| 근체시 73 수 | 13 (18%) | 36 (49%) | 23 (32%) | 9 (12%) | 21 (29%) | 23 (32%) |
| 오류 29 수  | 1 (3%)   | 8 (28%)  | 3 (10%)  | 1 (3%)  | 3 (10%)  | 4 (14%)  |

오류가 있는 26 수 중 격률에 문제가 있는 구절에 해당하는 미평을 받은 작품은 <芙蓉山中話舊述懷><sup>8</sup> 1 수이다. 이 시는 이조원이 『우촌시화』에 수록한 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74 수에 미평을 남긴 비율보다 격률에 문제가 있는 구절에 미평이 드물었음을 알 수 있다.

각 구절의 잘됨 정도를 평가하는 권과 점 비율을 살펴보면, 73 수의 근체시 전체에서 이조원은 35 수에 권, 23 수에 점을 남겼고 반정균은 21 수에 권, 23 수에 점을 남겼다. 유득공이 오류를 범한 29 수의 해당 구절에 대해서는<sup>9</sup> 이조원은 9 수에 권, 5 수에 점을 남겼고 반정균은 5 수에 권, 4 수에 점을 남겼다. 이에 따르면 근체시 73 수보다 오류가 있는 29 수의 해당 구

<sup>7</sup> 심경호(2005), 『한문산문의 미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p.125~126.

<sup>8</sup> 이 시는 이후 3-2 장에서 살펴볼 <同宋芝山話舊述懷>와 같은 시이다. 『한객건연집』에는 <芙蓉山中話舊述懷>이라는 제목으로, 『가상루집』에는 <同宋芝山話舊述懷>라는 제목으로 실려있다.

<sup>9</sup> 압운 오류의 경우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절에 권과 점의 비중이 낮았다. 반정균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대략 반으로 줄었다. 격률 이외의 원인도 있겠지만, 이 결과를 토대로 오류를 범한 구절에 대해서는 ‘잘 되었다’는 평가가 드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오류를 범했다고 해서 무조건 평가 밖으로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오류와 무관하게 인정받은 구절이 더러 나타나기 때문이다.

권과 점은 대체로 대구를 이루는 구절 전체에 표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칠언시의 함련이 잘되었다고 평가할 경우 14 자 전체에 권이나 점을 찍는 것이다. 이것은 이조원과 반정균이 시를 연(聯) 단위로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달리 말해, 오류를 범한 구절이라도 대구가 아름다우면 권이나 점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조원과 반정균이 공통적으로 권이나 점을 찍은 오류가 있는 시는 총 6 수이다. 이 중 한 수는 이조원의 『우촌시화』에 실리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도록 하고, 나머지 5 수 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 먼저 <송경잡절>의 한 수에는 격률 오류에도 불구하고 3,4 구에 이조원과 반정균의 권이 쳐져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吹笛橋邊踏靑去。仄仄平平仄仄仄 취적교(吹笛橋) 주변으로 담청놀이 나가고  
禮成江上打魚回。仄平平仄仄平平 예성강(禮成江) 강가에서 고기 잡고 돌아온다..<sup>10</sup>

이 구절은 봄이 돌아온 송경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3 구와 4 구의 서술구조가 동일하며, 취적교와 예성강이라는 실제 지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담청놀이와 고기 잡는 행위는 ‘놀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며 ‘나가고(去)’ ‘돌아오는(回)’ 행위가 대비되는 것 또한 훌륭한 대구를 이루고 있다. 격률을 따지자면 ‘靑’자 자리에는 246 부동 원칙에 따라 측성자가 놓여야 한다. 만약 ‘靑’이 측성이었다면 그 앞의 ‘踏’자의 자리에는 평성이 와야 하삼측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踏’은 측성이므로 3 구에서는 ‘246 부동·고평·고측’의 격률에서 오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격률의 문제보다 내용상의 대구가 뛰어나 이조원과 반정균의 권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자. 다음은 칠언율시 <동연암형암유마포>의 함련이다. 이조원과 반정균의 권이 쳐져있다.

韓使不歸島雲白。平仄仄平仄仄仄 한사(韓使) 돌아오지 않으니 섬에는 구름 자욱하고  
蒙姬一去峴花愁。仄仄仄仄仄平平 몽고 공주 떠나가니 고개에는 꽃도 수심잡네..<sup>11</sup>

이 구절은 마포(麻浦)를 배경으로 하는 한국의 고사를 풀어낸 것이다. 3 구와 4 구의 서술구조는 동일하다. 한사(韓使)와 몽고 공주(蒙姬)라는 과거의 인물을 끌어내어 한사는 중국으로 떠나 돌아오지 않음(不歸)을, 몽고 공주는 고려에 와서 죽음(一去)을 대비하고 있다. 앞의 4 자는 역사적 사실로 꾸미고 뒤의 3 자는 자연물에 감정을 대입해 표현하고 있다. 3 구의 ‘雲’자 자리에는 246 부동 원칙에 따라 측성자가 놓여야 하는데 평성이 왔고, 이

<sup>10</sup> 유금편·박중훈역(2011), 『중국에 소개된 조선시 한객건연집』(問津, p.116)을 참고하되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필자가 수정을 가했다.

<sup>11</sup> 유금편·박중훈역(2011), 전게서(p.163.)를 참고하되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필자가 수정을 가했다.



로 인해 연쇄적으로 고측과 고평을 범하게 됐다. 이러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아름다움이 권을 끌어냈을 것이다.

### 3-2. 『우촌시화』의 유득공 시 수용

『한객건연집』 내 사가의 작품은 이조원의 『우촌시화』에 실려 중국 내에서 간행된다. 전편이 실린 것은 아니며 이조원의 판단에 따라 유득공의 시는 3수가 이 시화에 실렸다. <동송지산화구술회(同宋芝山話舊述懷)><sup>12</sup> 1수와 <송경잡절(松京雜絕)> 2수가 그것이다.<sup>13</sup> 그런데 <동송지산화구술회>는 앞서 살펴본 ‘오류를 범했으나 이조원과 반정균의 평을 받은 작품’에 해당한다. 본장에서는 격률상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이조원이 이 시를 자신의 시화집에 실은 까닭을 고찰해 보도록 한다. 먼저, 『우촌시화』 사가시의 선시 기준을 그 서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옛날의 시화류는 많이들 있던 구절을 따와서 갖추었는데, (특히) 당송 이후의 시기에서 채취한 것들이 손꼽아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그러나) 나는 구래여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스스로 평상시 詩에 대해서 매우 좋아한다면 날마다 혹은 달마다 이전의 잘못을 모두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옛날 사람이 말하길, “의원은 세 번 팔을 부러뜨려봐야 좋은 의원이 된다”고 하니, 이러한 이치 탐구(道究)를 모른다면 어떻게겠는가? 연습이 쌓여야 잊지 않는 것이다. 일찍이 생각건대 시법은 여러 대가들에게서만 나오지는 않고 매번 동인들의 순수한 논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지금 법으로 삼을 만한 것을 가려 가져와 대략 한 두 수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세속과 달라서 음미하는 맛이 헤아릴 수 없는 곳에 있을 것이다. 논한 것이 모두 시이기 때문에 역시 시화라고 해둔다.<sup>14</sup>

이조원은 당송이후의 시구를 따와 시법을 논하던 기존의 시화류에 회의를 갖고 ‘대가’들이 아닌 ‘동인(同人)’<sup>15</sup>들의 순수한 논변을 시법으로 삼고 있다. 또한 시법으로 삼는다는 것은 곧 아이들에게 가르칠 정도로 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조원은 사가를 ‘동인’으로 파악하고 당송풍의 시구를 따지 않은 참신한 표현과 순수한 논변이 드러난 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조원의 태도를 염두에 두고 『우촌시화』에 수록된 유득공의 작품 <同宋芝山話舊述懷> 1 수를 살펴보자.

<sup>12</sup> <同宋芝山話舊述懷>은 『한객건연집』 <芙蓉山中話舊述懷>과 같은 시이다. 『우촌시화』는 『가상루집』을 인용했으므로 이 장에서는 『가상루집』의 제목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sup>13</sup> 박현규(1998), 「조선 四家詩 <韓客巾衍集>과 청 李調元 <雨村詩話>와의 원문 수록 관계」(서지학보 21)을 참고한다.

<sup>14</sup> 이조원, 『우촌시화』 序, 연대도서관 영인본 중화민국 61년(1972) 출판, 2권 본. “古人詩話類, 多摘句以備, 採取唐宋而降, 指不勝屈矣. 余非敢然也, 但自念生平于詩有酷嗜, 而以日以月, 總覺前此之非. 古人云 醫三折肱爲良醫. 不知于此道究, 何如也. 積習未忘. 嘗以爲詩法不出乎諸大家, 每于同人多諄諄論辨, 今擇摘可以爲法者, 略舉一二以課兒, 與俗殊酸醎在所不計也. 因所論皆詩故亦曰詩話云. 羅江李調元鶴洲識.”

<sup>15</sup> 김병민, 『조선중세기 북학과 문학연구』(태학사, 1992)에서는 同人을 “志同導合之人”으로 해석하고 있다.

東小門東更向東 平仄平平仄仄平 동소문 동편에서 다시 동쪽 향하니  
 新興蕭寺舊樓同 平平平仄仄平平 신흥사 옛 절은 그 터에 그대로네.  
 別來幾日非吳下 仄仄仄仄平平仄 헤어진 지 며칠 만에 그대 오하(吳下)아니고  
 和者無人又郢中 仄仄平平仄仄平 화답하는 이 없으니 이 또한 영중(郢中)일세.  
 不及鳳凰得過鳥 仄仄仄平仄仄仄 봉황은 지나가는 새만도 못하고,  
 可憐鸚鵡寄居蟲 仄平平仄仄平平 앵무는 벌레 사이에 기거하니 가련하구나.  
 寒山蠹管悲今夜 平平仄仄平平仄 찬 산의 피리 소리 이 밤에 서러운데  
 遶屋霜鳴櫺櫺紅<sup>16</sup> 平仄平平仄仄平 집 주위 내린 서리에 단풍 붉기도 하다..<sup>17</sup>

이 시에는 다양한 제목이 붙어있다. 먼저 『우촌시화』에는 <同宋芝山話舊述懷>이라는 제목으로, 김세균본 『한객건연집』에는 <芙蓉山中話舊述懷><sup>18</sup>으로, 『영재집』에는 <夜坐與芝圃子話舊>으로 수록되어 있다. 제목을 통해 유득공이 지포자(芝圃子)와 함께 부용산(芙蓉山)에서 옛 술회를 읊은 시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지포자는 유득공과 친했던 송준재(宋俊載)의 호이다.<sup>19</sup> 둘은 1774 년 함께 동교(東郊)에 나가 수학하기도 한다. 한편, 부용산은 송준재가 독서를 위해 들어갔던 산으로<sup>20</sup> 본문 내용의 동소문(東小門) 또는 신흥사(新興寺)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동소문은 ‘혜화문(惠化門)’의 속칭으로 이 시에서는 서울의 성문 밖 동쪽을 의미한다. 신흥사는 경기도 개성시 궁성 밖에 있었던 절로 고려 태조 2 년인 919 년에 10 대 사찰의 하나로서 창건되었다. 정리하자면 부용산은 한양과 개성의 성문 밖에 있는 산으로 이 시의 배경은 조선 내부이다.

수련에서는 동소문과 신흥사 등의 조선의 명소를 넣어주어 시의 배경을 나타내고 있다. 함련에서는 중국의 고사를 빌려 송준재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의 학식이 몰라보게 성장했음을 나타낸 것이다. 경련에서는 일취월장한 송준재에 대비해 유득공 자신을 지나가는 새에도 미치지 못하는 봉황과 벌레 사이에 기거하는 가련한 앵무로 비유하고 있다. 자신의 처지나 역량에 대한 자조로 보인다.<sup>21</sup> 미련에서는 현실로 돌아와 고요한 밤에 피리 소리 구슬피 울리는 처량함을 표현하면서 서리에도 여전히 붉은 단풍을 들어 주변 현실에 매몰되지 않으려는 기상을 나타냈다.

이 시는 東운으로 압운을 한 칠언율시이다. 5 구의 ‘得’자는 측성으로 하삼측을 범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연쇄적으로 앞의 ‘鳳’자는 고평이 된다. 5 구

<sup>16</sup> 『한객건연집』 <芙蓉山中話舊述懷>은 “東小門東更向東。新興蕭寺舊樓同。別來幾日非吳下。和者無人又郢中。還似寒號得過鳥。偏憐瑣■寄居蟲。寒山蠹管悲今夜。繞屋霜鳴櫺櫺紅。”으로 상이한 몇 글자가 있지만 격률상의 문제점은 일치한다. 본문의 ‘°’ 표시는 이조원의 권을 표기한 것이다.

<sup>17</sup> 유금편·박중훈역(2011), 전개서(p.154-155)를 참고하되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필자가 수정을 가했다.

<sup>18</sup> 국립중앙도서관 <古貴 3643-20>본과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 45-가 47>본도 일치한다.

<sup>19</sup> 김영진(2007), 「유득공의 생애와 교유, 연보」, 대동한문학회 27 집, p.6.

<sup>20</sup> 유득공, 『영재집』, 「田園雜詠序」, “芝圃子雅善聲詩。妙年擅科第。排金門上玉堂。羽儀清朝。行且有日矣。顧忽忽不樂處京師。策驢東出。載經籍入芙蓉山中。”

<sup>21</sup> 박중훈(2009), 「영재 柳得恭의 초기 詩 考察 : 『韓客巾衍集』을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제 23 집, p.206-207.

전체에 측성이 6 글자, 평성이 1 글자라는 것만으로도 성조가 격식에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에 이조원은 ‘붓 끝의 변화가 종잡을 수 없어 구름과도 같고 용과도 같네(筆頭變幻如雲如龍)’이라는 미평을 남기고 있다. 또 함련 “別來幾日非吳下, 和者無人又郢中”과 경련의 “得過鳥, 寄居蟲”에 권을 치고 있다. 함련과 경련에서 벗의 일취월장한 면모와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대비시켜 묘사해 나간데 대한 긍정적인 평가였던 것으로 보인다.<sup>22</sup> 또한 3 구와 4 구, 그리고 5 구와 6 구의 서술구조가 각각 동일하여 조화로운 대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정균 역시 이 시에 ‘대를 이룬 것이 생동한 맛이 있다(屬對生動)’는 미평을 남기기도 했다. 즉, 5 구 평측의 문제보다 대구를 통한 내용의 생동감으로 인해 이 시가 『우촌시화』에 실린 수 있었던 것이다.

#### 4. 이조원과 반정균의 평가 태도

본장에서는 『한객건연집』을 평가하기 이전에 이조원과 반정균은 어떠한 시인이었으며, 어떠한 태도로 『한객건연집』 평가에 임했을지 살펴보는 것으로, 그들이 『한객건연집』에 남긴 평어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조원의 경우 『한객건연집』 서문과 서호수가 그의 『월동황화집(粵東皇華集)』을 읽고 보낸 서찰 통해 시관을 살피고, 반정균의 경우 그의 교유 관계를 통해 평가 태도를 살펴본다.

##### 4-1. 이조원의 시관

먼저 이조원이 『한객건연집』에 쓴 서문에 다음과 같은 시에 대한 생각이 나타나있다.

무릇 시가 예스러움을 잃은 지 오래되었다. 당인의 작품은 그 소리가 중정하고 화평하여 漢魏와는 그리 멀지 않으나 宋元에 이르러 거칠고 사나우며 슬프고 낮은 가락의 소리가 일어났다. 그래서 도리에 넘치는 것을 좋아한 것은 음탕하고 여색을 즐긴 것은 탐닉스러우며, 절주가 짧고 급박한 것은 번거롭고 오만방종한 것은 교만하였다. 이로 인해 소리에 입히면, 높은 것은 깨진 소리요 낮은 것은 방자하며, 기운 것은 산만하고 험한 것은 거두어지며, 사치한 것은 험착하고 가리운 것은 담담하여, 모두 옛 것을 법도로 삼지 않았다. (중략) 지금 四家의 시를 살펴보니, 심중하면서도 웅장한 것은 그 재주요, 맑고 우렁차게 울리는 것은 그 절주요, 크고 넓은 것은 그 기상이요, 정중한 것은 그 말이니, 앞에서 말한 꾸지람과 하나라도 유사한 것이 있는가?<sup>23</sup>

이조원은 시의 ‘예스러움’을 강조한다. 韓魏 때의 시로 복고를 주장하며 宋元의 시에 대하여 ‘꾸지람’을 하고 있다. 특히 그 ‘소리’에 있어서 높고 낮고, 기울어지고 험하고, 사치하고 가리운 것 등에 대하여 꾸짖음을 가하

<sup>22</sup> 박중훈, 전게서, p. 207, 각주 12 번 참고.

<sup>23</sup> 유금편·박중훈역(2011), 전게서, p.2-3, “夫詩之失故久矣。唐人之作，其聲中正和平，去漢魏未遠，迨宋元以降，而麤厲嚙齟之音起。好濫者淫，燕女者溺，趣數者煩，敖辟者喬，由是被之聲，高者而下者肆，陂者散而險者斂，侈者管而弁者鬱，均未可以道古也。(中略)今觀四家之詩，沈雄者其才，鏗鏘者其節，混浩者其氣，鄭重者其詞，有一類于前之所譏者乎?”

고 있다. 3장에서 살펴본 『우촌시화』서의 이조원 태도와도 연결된다. 또 마지막에서 사가의 시를 찬미하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조원의 『월동황화집』을 읽고 서호수가 부친 서찰에는 그의 시를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詩學이 망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무릇 명말 군자 때부터 景을 적을 때 걸핏하면 당나라 시인을 끌어당기고 敍事를 말하면 늘 宋調를 칭합니다. 풍격은 혹 의미가 깊고 도야함이 혹 정교함에 가까우나, 빨리 읽으면 이빨과 뺨이 멍하고 서서히 보면 意趣가 따분하여 재미없습니다. 그 폐단은 음절이 급속하고 기상이 처참하고 짧은데 이르면 온유돈후의 뜻을 전부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개 당시를 배우면 그 天機를 상실하고 송시를 배우면서 그 재지를 없애 버려 겹대기일 뿐이고, 조락일 뿐입니다.

집사의 시, 즉 『월동황화집』의 여러 시편으로 본다면 구습의 누를 초탈하고 순아한 진실을 일임하여 당도 아니고 송도 아니며 집사의 말을 홀로 이루었습니다. 격조의 창건함이나 음운의 고결함은 山谷 黃庭堅과 放翁 陸游에 생각을 두지 않아도 저절로 산곡과 방옹에 합치되니 또한 歐陽修가 太史公 司馬遷을 잘 배웠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중략)

정유년 정월 보름. 조선국 부사 서호수 배상<sup>24</sup>

서호수는 이조원의 시가 당송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말을 이룬 것이라 기록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이조원은 시의 ‘예스러움’을 회복하고자 했으며 이로 인해 당시의 당풍이나 송풍과 같은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격조와 고결한 음운을 그려내었다. 이것은 당시 고식적인 문단 풍토를 탈피하고 참신한 창작을 추구하고 있던 북학과 문사들의 시작 태도<sup>25</sup>와 일치하는 면이 있다. 사가 역시 북학과에 속하는 인사들이었으며 이들의 시가 이조원에게 긍정적으로 읽힐 수 있었던 이유로 참신함을 추구하는 시작 태도가 일치했음을 들 수 있다. 또한 참신을 추구하던 이조원의 입장에서 속국(屬國) 젊은이들의 시는 ‘새로움’ 그 자체였을 것이다.

#### 4-2. 반정균의 태도

반정균은 유금이 찾아가기 이전부터 조선인들과 교유를 맺고 있었다. 1765년 연행에 오른 홍대용(洪大容, 1731~1783)과 양허 김재행(金載行)은 1766년 봄 육비(陸飛)·엄성(嚴誠)·반정균과 인연을 맺고 이후에도 척독을 주고받으며 사귀를 지속했다. 반정균은 이들과의 만남을 십년이 지난 유금의 연행시에도 기억하고 『한객견연집』 서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병술년(1766) 봄 담헌 홍대용과 양허 김재행 두 선생과 만나 함께 머무르며 필담을 나누었는데 심히 즐거웠다. 담헌은 정주의 학문을 독실히 믿고 몸소 실천했으며, 시로써 이름나기를 바라지 않았었다. 양허의 시는 청아하고 고원했으며 여유롭고 방달하여 후세에 전해질만 했다. 그 가슴 속의 우뚝한 기상을 짚할 수 없었는데 헤어지고 나니 생을 마치도록 다시 만

<sup>24</sup> 박현규(1999), 「조선 유금, 서호수와 청조 이조원과의 교류 시문」, 한국한시연구 7권, p.379~380.

<sup>25</sup> 박현규(1999), 전게서, p.375.

나를 기약이 없었으며, 소식을 주고받지 못한 지도 수년이 되어 마음속에는 슬픔만이 가득했다..<sup>26</sup>

홍대용과 항주 세 문사와의 교류는 조선후기 한중 문인교류의 대표적인 만남으로 간주되었다.<sup>27</sup> 이 교류는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입장에서조차 소중한 것으로 기억되었던 것 같다. 이러한 ‘지기(知己)’<sup>28</sup>의 관계는 사가와 유금에게도 이미 알려진 것이었다. 이덕무는 홍대용이 항주의 벼를 그리워함을 옆에서 보고 <홍담헌대용원정(洪湛軒大容園亭)>이라는 오언고시를 짓는다. 그 내용은 홍대용에게 감정을 이입시켜 엄성과 육비, 반정균을 생각하는 근심을 그려내는 것으로 하고 있다. 유금은 『한객건연집』에 이 시를 실어 반정균에게 보인다. 애초 유금이 이 책을 선집했을 때부터 반정균에게 보이기를 작정한 듯하다. 유금의 예상처럼 반정균은 이 시에 아주 긴 미평을 남겼다.

1.2 구는 담헌선생의 인물과 심성을 가잘 잘 묘사했다. 담헌은 동방의 고사로 헤어진 지 10년이 되었는데, 종신토록 다시 철교 엄성을 보지 못했으며, 무덤의 묵은 풀도 이미 오래되었다. 이 시를 읽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속으로부터 슬픔이 솟아나 스스로 눈물이 흐르는 지도 알지 못했다..<sup>29</sup>

시의 격률보다 그 내용과 자신의 감정에 깊이 빠져든 반정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달리 말해, 사가와 반정균은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담헌이라는 ‘매개자’를 통해 이미 감정적인 소통이 가능했고, 이것이 유금의 『한객건연집』 전파를 통해 상호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반정균이 사가의 시를 평가했을 때 ‘평측’이라는 시의 특성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분명 많았을 것이다.

## 5. 맺으며

서경덕의 『화담집(花潭集)』은 『사고전서(四庫全書)』 별집류(別集類)에 편입된 유일한 조선의 시문집이다. 그런데 『사고전서』는 이 책을 실으면서도 “그 나라의 방음(方音)이 많이 섞였다.(多襍其國方音)”고 기록했다. 실제로 『화담집』에는 가(歌)운과 마(麻)운을 우리나라 음가로 생각하여 통압 가능하다고 여긴 예가 등장한다.<sup>30</sup>

『화담집』과는 달리, 『한객건연집』은 국가적 차원의 엄정한 분석을 요하는 것이 아니었다. 『한객건연집』 속의 유득공 작품 2 수에도 가(歌)운과

<sup>26</sup> 유금편·박중훈역(2011), 전게서, p.5.

<sup>27</sup> 천금매(2011), 「18~19 世紀 朝.淸文人 交流尺牘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4.

<sup>28</sup> 박은정(2010), 「조청지식인의 만남과 "知己"의 표상 : 『乾淨동筆談』을 중심으로」, 동방학 제 18 집.

<sup>29</sup> 유금편·박중훈역(2011), 전게서, p.94, “一結尤寫盡湛軒先生人品情事. 湛軒東方高士, 一別十年, 終身不可再見鐵頭, 宿草已久. 讀此詩, 數過悲從中, 自不知淚涕之交流也.”

<sup>30</sup> 허경진·유창(2012), 전게서, 참고.



마(麻)운을 통합한 사례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조원과 반정균은 이것을 ‘방음(方音)’으로 지적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조원은 권과 점을 남겼다.<sup>31</sup>

이후 중국에 전파된 유득공의 『이십일도회고시』 역시 마찬가지이다. 청국인 조지겸(趙之謙)이 『仰視千七百二十九學齋叢書』에 『이십일도회고시』를 수록하며 쓴 서문의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시 중에 ‘牡丹’이 ‘牧丹’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그의 나라의 방언이다. <尚書·釋文·牧誓>에 따르면 徐音茂가 <說文>에서 ‘姆’로 썼지만 <字林>에서 母로 되어 있다. <顏氏家訓·書證篇>의 시에서 ‘駟駒牡馬’ 강남에서 ‘牡’를 썼지만 하북에서 원래 ‘牧’으로 되어 있다. <唐石經>에 ‘牡馬’가 ‘牧’으로 되어 있는데 疏引定本을 다시 판각하여 ‘牧’을 ‘牡’로 고쳤다. ‘牧’과 ‘牡’는 通假字이다. 牡丹에는 ‘牡’로 되어 있어 <吳譜>와 諸家가 그 의미를 잘 모른다. 또 <楚詞·天問> 중에 ‘牧’에 대해 王逸의 注에서 牧은 풀의 이름이라고 했다. 牧이 풀이라는 것은 오늘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다. ‘牧丹’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내가 옛날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서로 다르게 모르는 곳의 언어를 통하면 다 옛날의 음과 뜻이 남아 있어서 이에 의해 고증할 수 있다.<sup>32</sup>

유득공의 『이십일도회고시』에 ‘牧丹’이 사용된 시 2 수가 보인다.<sup>33</sup> ‘牧丹’은 고려시대부터 모란꽃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으며 이후 고려와 조선에서는 ‘牧丹’과 ‘牡丹’이 병용되었다. 조지겸의 입장에서 ‘牧丹’이라는 글자는 조선의 방언이었는데도 그는 ‘牧’자의 뜻을 고증하여 조선의 방언을 이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조선의 방음이라고 해서 ‘속음(俗音)’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사고전서』가 집성된 시기와 유득공의 작품이 중국에 전파된 시기는 비슷하다. 그러나 같은 문제점에도 수용하는 이의 입장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졌다.

『한객건연집』 내 유득공의 작품은 그의 초기 문집인 『가상루집』에서 발췌한 것이다. 『가상루집』의 서문에 서형수는 유득공이 청각적이고 시

<sup>31</sup> <송경잡절> 3 번째 수 “清溪曲曲水嵯峨。知道宮中舊浣紗。素手一雙人去後。幾番鳴咽換新波。” <증이석장군> 1 번째 수 “日落嚴城鼓二撾。碧紗籠燭恣經過。輕裘綬帶荊南將。曼睞脩眉楚國娥。狂把水晶如意舞。醉敲白玉唾壺歌。鍾情自古如吾輩。莫問無端喚奈何。”

<sup>32</sup> 조지겸, 『仰視千七百二十九鶴齋叢書』, “洌水, 柳惠風, 好古, 工文詞所著, 有渤海考, 及二十一都懷古詩. 手稿舊存翁氏石墨書樓, 後入葉氏寶雲齋, 余又得之葉氏. 或言懷古詩有刻本, 刪改大半, 與此異, 則余未見. 柳氏此稿, 詞旨淹雅. 書籍亦適古可喜, 宜竝存也. 詩中牡丹字作牧丹, 蓋其國方言. 案書釋文牧誓, 徐音茂, 說文作姆, 字林音母. 顏氏家訓, 書證篇, 詩, 駟駒牡馬, 江南書作牡, 河北本為牧. 唐石經, 牡馬作牧, 乃改刻疏引定本牧作牡. 牧牡古通假字也. 牡丹稱牡, 吳譜諸家不詳其義. 又楚詞, 天問其牧, 王叔師注, 牧艸名, 牧之為艸, 今亦未聞, 豈牧丹類耶. 余嘗謂殊方異域, 通其語言, 皆有古音古義之遺, 足資考證, 惜劉旌賢之書不傳, 無能說聲界矣. 因讀此詩附著之. 會稽趙之謙.” (이낙(2012), 「『叢書集成』에 수록된 조선 문인의 작품에 대한 고찰 - 유득공, 박제가, 김정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6.)

<sup>33</sup> 유득공, 『이십일도회고시』, <고려(개성부)>, “銀燭如星照禁局. 題詩多上牧丹亭. 如今破瓦高山在. 不復三呼繞殿青.”, “指點前朝宰相家. 廢園風雨土牆斜. 牧丹孔雀凋零盡. 黃蜨雙雙飛菜花.”

각적인 측면을 살려 시어를 조탁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보다는 역사적인 시쓰기에 골몰했다고 이야기했다. 반면, 『한객건연집』 발문에 반정균은 유득공이 ‘격률에 유독 뛰어나다’고 기록했다. 이에 본고는 2 장에서 『한객건연집』 내 유득공 작품을 분석했고, 평측의 오류를 발견했다. 3 장에서는 오류가 있는 구절이 다른 구절에 비해 이조원과 반정균의 권과 점을 적게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가의 대상에서 논외가 된 것은 아님을 밝혔다. 비록 평측에서 오류를 범했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대구가 완성됐을 경우 권과 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조원이 『우촌시화』에 수록한 작품에도 하삼측과 고평을 범한 구가 있었지만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이조원과 반정균의 시관 또는 평가 태도와 연관 있다. 4 장에서는 이조원의 시관과 반정균의 『한객건연집』에 임하는 태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들이 우호적인 입장에서 『한객건연집』을 평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유득공의 초기 시 작품에는 근체시의 평측을 지키지 않은 구절이 더러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대구와 인간적 유대, 조선에 대한 이해 등으로 호평을 받을 수 있었다. 반정균의 ‘격률에 유독 뛰어나다’라는 평어는 이러한 흐름에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 <참고문헌>

- 『한객건연집』, 버클리 대학 소장 김세균본  
 『한객건연집』, 국립중앙도서관 <古貴 3643-20>  
 『한객건연집』,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 45-가 47>  
 서형수, 『명고전집』  
 유득공, 『영재집』  
 유득공, 『이십일도회고시』
- 김병민(1992), 『조선중세기 북학과 문학연구』, 태학사,.  
 심경호(2005), 『한문산문의 미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왕력 저 ·송용준 역주(2005), 『중국시율학 1』, 소명출판,.  
 유금 편 ·박종훈 역(2011), 『중국에 소개된 조선시 한객건연집』, 問津.  
 유득공 지음 · 김윤조 옮김(2005), 『누가 알아주랴 : 유득공 산문집』, 태학사,.  
 이조원(1972), 『우촌시화』 序, 연대도서관 영인본 중화민국 61 년 출판, 2 권본.  
 김윤조(2004), 「후사가(後四家) 한시의 문예미 ; 유득공 시의 문예미 - 『사가시집』에 실린 시를 중심으로 -」, 韓國漢詩研究 12 집.  
 김영진,(2007) 「유득공의 생애와 교유, 연보」, 대동한문학회 27 집.  
 박은정(2010), 「조청지식인의 만남과 "知己"의 표상 : 『乾淨동筆談』을 중심으로」, 동방학 제 18 집.  
 박종훈(2009), 「영재 柳得恭의 초기 詩 考察 : 『韓客巾衍集』을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제 23 집.  
 박현규(1998), 「조선 四家詩 <韓客巾衍集>과 청 李調元 <雨村詩話>와의 원문 수록 관계」, 서지학보 21.\_\_\_\_\_(1999), 「조선 유금, 서호수와 청조 이조원과의 교류 시문」, 한국한시연구 7 권,.  
 이녹(2012), 「『叢書集成』에 수록된 조선 문인의 작품에 대한 고찰 - 유득공, 박제가, 김정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천금매(2011), 「18~19 世紀 朝.淸文人 交流尺牘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허경진 · 劉暢(2012), 「『사고전서』에 실린 서경덕 시의 격률에 관하여」, 『동양한문학연구』 제 34 집, 동양한문학회,.



## A Studying of ‘Sounds’ and ‘Metrics’ of Deuk-gong Yu's poems written in *Hangaekgeonyeonji*.

Hur Kyung-jin • Cho young-sim

In 1776, Yu Geum(柳琴) travelled away from home with *Hangaekgeonyeonjib* (韓客巾衍集) collecting respectively 100 poems of Deok-mu Lee(李德懋), Deuk-gong Yu(柳得恭), Je-ga Park(朴齊家) and Seo-gu Lee(李書九) and got comments of Jo-won Lee(李調元) and Jeong-gyun Ban(潘庭均) of Qing. Deuk-gong Yu's works published in *Hangaekgeonyeonjib* were excerpts from his earlier collection, *Gasangnujib*(歌商樓集). Yet Hyeong-su Seo(徐滢修) who wrote the foreword of *Gasangnujib* recognized that Deuk-gong Yu could have elaborated poetry language with auditory and visual aspects, but that he focused on a more historical writing. In the meantime, Jeong-gyn Ban recorded that Deuk-gong Yu was especially excellent at metrics in the epilogue of *Hangaekgeonyeonjib*. ‘Sounds’ and ‘metrics’ have somewhat related, but why did they have different thoughts?

Thus, this paper examined to what extent quatrains and verses with five and seven word lines among Deuk-gong Yu's works published in *Hangaekgeonyeonjib* in Chapter 2 accorded with the metrics of Classical Chinese verses 74 out of the 100 poems were in the form of Classical Chinese verses and among them 26 poems had some errors. And yet in spite of the errors, Jo-won Lee and Jeong-gyun Ban left Gwon(圈) and Jeom(點) for their excellent rhyming couplets and Jo-won Lee published three poems in his *Uchonshihwa*(雨村詩話). In addition, Jo-won Lee and Sa-ga(四家)'s poems commonly pursued freshness, and Jeong-gyun Ban who made friends with Joseon people early was friendly to them. Although not all Deuk-gong Yu's poems were excellent in ‘sounds,’ they could get good evaluations with their various beauties.

**Keywords:** Deuk-gong Yu, *Hangaekgeonyeonjib*, Sounds, Metrics, Grade

